

광주지역 인공지능 스타트업 혁신성과 ‘한 자리’

AI사업단, 진도서 ‘성과공유회’ 기업 성장 성공 사례·비전 공유 그린에이아이 등 우수사례 발표 “광주 AI 생태계 중심지로 도약”

광주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의 혁신적 성과를 조망하는 ‘성과공유회(AI Boom-up Day)’가 마련됐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2024 AI 스타트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유회는 AI 창업과 기업 성장의 주요 성과를 나누고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창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AI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재조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날에는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사업’과 ‘AI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호미에이아이,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그린에이아이, ㈜투비유니콘, ㈜메디아이프러스 등 5개 우수 기업이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호미에이아이는 기존의 T2I 생성 프

레이워킹을 뛰어넘어 입력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한 AI 프레임워크 ‘EBDM’을 사업화하고 있다.

디지털로그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AI 기반 클라우드형 통합 마케팅 플랫폼을 개발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출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까지 획득했다.

그린에이아이는 자율주행 잔디 관리 로봇 잔디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투비유니콘은 교육 중심 AI DX(디지털전환) 모델을 개발, 생성형 AI를 통해 교사의 업무를 보완하며 교육 혁신을 이끌고 있다.

㈜메디아이프러스는 바이오벤처를 위한 경쟁약물 분석 AI 솔루션을 개발해 북미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다.

또 전남대학교 김봉중 교수가 ‘미국의 프론티어 성공 신화’를 주제로 강연하며 실리콘밸리 AI 기술의 발전 배경과 스타트업 성공 요인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교류회에서는 기업 간 명함 교환과 협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며 실질적인 네트워크 기회가 마련됐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커뮤니케이션컨설팅앤클리닉 백승권 대표가 ‘한 번에 통과되는 보고서의 법칙’을 주제로 스타트업 실무자들에게 문서 작성 노하우를 전

수하고, AI 창업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AI 창업과 기업 성장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광주 AI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Boom-up Day’는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성과를 알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모델을 제시한 자리다”면서 “앞으로도 창업 지원과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신세계, ‘디사이즈네버댓’ 오픈 광주신세계가 21일 플레이스팩(구 신관)에 스트리트 웨어인 ‘디사이즈네버댓(THISISNEVERTHAT)’을 신규 오픈했다. 지난 2010년 런칭한 디사이즈네버댓은 국내 스트리트 브랜드 중 고객 수요가 높은 브랜드로,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과 협업 상품으로도 유명하다. 밀리터리 스타일과 1990년대 스포츠 웨어를 기반으로 하며 유명 래퍼들이 즐겨입으면서 더욱 확산됐다. 광주신세계는 디사이즈네버댓의 신규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4일까지 10~30% 브랜드 세일을 진행한다. 또 10만원 이상 구매 시 리유저블백을 선착순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기아 광주공장, 내년 전용전기차 ‘EV5’ 양산

기아오토랜드 광주가 중국에서만 생산하는 준중형급 전용 전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EV5’를 내년부터 본격 양산한다.

광주공장은 첫 전용 전기차인 EV5 생산 라인 구축을 착착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연간 50만대이던 생산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기아는 신차 프로젝트명 ‘OVI’으로 개발한 EV5를 내년 광주 1공장에서 양산한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올해 하계휴가와 추석연휴 등을 이용해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설연휴 등 상반기까지 라

인 구축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인 전용 배터리 장착 공정 라인도 구축중이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현재 주력 차종인 스포티지와 쏘울 등을 내연기관과 전기차로 혼류생산하고 있지만 EV5는 첫 전용 전기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V5는 국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스포티지급 크기로, 앞으로 기아 광주공장의 주력 차종이 될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EV5가 본격 양산되면 연간 50만대를 생산하는 광주공장의 생산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기대감이 고조된다.

박소영 기자

금호타이어·골프존, ‘타이어프로컵’ 골프 대회

내달 22일까지 일반인 대상 프로경기 ‘지투어 믹스드 컵’도

금호타이어가스크린골프대회 ‘타이어프로 컵’ 및 ‘타이어프로 지투어 믹스드 컵’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타이어프로 컵’은 금호타이어가 다양한 연령대의 스크린골프 이용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골프존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대회 기간 중 각 코스와 스코어보드 등 경기 곳곳에 금호타이어의 겨울용 프리미엄 타이어 ‘윈터 크래프트’ 브랜드 고를 노출하며 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한 겨울용 타이어 교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대회 경품으로 △1등 금호타이어 교환권(4개, 온라인 타이어프로 등록 제품) △2등 미즈노 아이언 세트 △3등 카모 스탠드백 등 총 100여명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금호타이어 구매 할인 쿠폰(개당 1만원, 최대 4개·4만원)을 지급하며, 경품 추첨은 내년 1월에 발표 및 시상 계획이다.

‘타이어프로 지투어 믹스드 컵’은 오는 23일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개최되며 80명의 남녀 프로가 출전하는 대회이다. 경기는 골프존 투비전NX 투어 모드에서 컷 탈락 없이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티박스(남자 백티, 여자 프론트티)를 제외한 대회 환경은 GTOUR 정규 대회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경기는 당일 오전 9시 1라운드부터 스크린골프존과 네이버·다음 스포츠, 유튜브 골프존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하는 최종라운드는 JTBC골프 채널에서도 추가로 생중계된다.

윤민석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타이어프로 컵과 타이어프로 지투어 믹스드컵을 동시에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골프존 에티켓 광고를 실시하는 등 골프존과 함께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 대회가 스포츠 교류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승용차용 프리미엄 겨울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WP72’, SUV전용 프리미엄 겨울타이어인 ‘윈터크래프트 WS71’은 저소음, 컴포트 성능을 향상해 승차감과 주행안정성이 뛰어나다. 한국의 겨울철 노면은 최근 사고 위험이 높은 블랙아이스나 눈이 살짝 녹은 슬러시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해당 제품들은 이러한 도로 특성에 최적화된 성능을 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소영 기자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아르헨티나서 이색 광고

옥외광고 영상 노출 1400만 돌파

삼성전자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난월부터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이색 옥외광고를 진행했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 4000여명이 이용하는 현지 최대 규모 지하철역인 ‘후라멘도’역 개찰구와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출구 등에 비스포크 AI 콤보의 특징점을 강조한 구조물을 노출하

고, 가상 옥외광고 영상을 소셜 채널에서 확산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광고 영상은 오염된 옷가지들이 시내 곳곳을 떠다니다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인 ‘콜론’ 극장 앞에 위치한 비스포크 AI 콤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완료돼 보송해진 세탁물을 보여주는 스토리로 구성됐다.

지난달 17일부터 공개된 가상 옥외광고는 한 달 만에 노출 수가 1400만을 넘어 서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물 이동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번에 가능하며, ‘AI 맞춤코스’가 세탁물의 무게와 오염도, 건조도를 감지해 알아서 세탁·건조 시간을 맞춰주는 제품이다. 지난 2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미국, 동남아, 중남미, 유럽에 진출해 호평받고 있다.

이번 가상 옥외광고 영상은 삼성 아르헨티나의 유튜브, 틱톡, 메타, X, 링크드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뜨거운 비트코인 장기보유가 답이다

비트코인 시장에 불이 붙었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어느새 원화로 개당 1억 3000만 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의 열기를 보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나 없는 투자자나 모두 고민도 깊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 천정이 아닌지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고 상승, 하락의 폭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냐를 결정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추가매수를, 없는 투자자는 과감하게 신규 매수를 해도 좋다는 생각이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을 주도한 세력은 개미들이 아니고 큰손들이었다. 지난 1월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 상장된 것을 분기점으로 투자은행, 펀드 등 기관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큰 손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지금의 상승을 뒷받침했다.

모든 자산시장이 그렇듯이 개미가 몰려올 때가 시장이 천정인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 농담처럼 떠도는 알기 쉬운 천정 지표중 하나는 옆자리의 이 과장도 건너편의 김 대리도 동네 박 여사도 비트코인에 진심이 담긴 관심을 보일 때다. 이때부터는 천정을 의심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내 주변에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비트코인 매수 의지를 보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상승의 여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에 적대적인 정책은 폐기될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사실 비트코인은 단기 투자로 사고파는 자산이 아니다. 비트코인 탄생과 비트코인이 갖는 특징을 이해한다면 보유하면서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맞다.

비트코인의 화신 마이클 세일러는 본

인의 회사인 마이크로스트레이지를 통해서 무려 24만개의 비트코인을 값을 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사서 모으고 있다. 앞으로도 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매수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기존 통화인 달러의 위헙성 및 부동산, 증권, 금, 원자재 등 각종 자산들의 특징을 비교할 때, 모든 자산들 중에서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상승할 유일하고도 완벽한 자산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의 분석을 모두 신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보유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하나로서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 해도 손색이 없는 자산이 비트코인 이 아닐까.